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4.18.(월) 10:30, 차덕철 대변인 직무대리(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4월 17일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4월 16일 저녁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외교·안보부처 차관급과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군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상황관리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4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일부 차원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지요?

<답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늘부터 4월 22일 금요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이 정해지는 대로 관련 사항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등 공개활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고 의전하는 새 인물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가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인물의 신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 인물의 활동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남북 통신선 연락은 원활했는지요? 또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회신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북은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 오늘 현재까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통신연락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도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시설 철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우리 측의 협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이 4월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대남 전술핵 공격용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통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군은 지난 4월 16일 오후 6시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으며, 현재 탐지된 발사체원 등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정밀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